

제9대 영천시의회 12명 7월 1일 임기시작...의원 84% 국민의힘

전반기 의장단, 초선 하기태 의장, 재선 의원 부의장 유력
 반 국민의힘 무소속 최기문 시장, 민선8기 시정운영 난항 전망

오는 7월 1일부터 민선8기 영천시장과 제9대 영천시의회 4년 임기가 시작된다. 그동안 최기문 영천시장은 민선 7기에서 노골적 반 국민의힘 정서를 보여왔다. 지금까지는 민주당 3명, 무소속 2명과 국민의힘 소속 중에서도 최 시장 편에서 협조해 온 의원이 있어 시정 운영에 별 무리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제9대 시의원 12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84%(10명)나 된다. 최 시장이 그동안 지역 당협위원장(이만희 의원)과 각을 세웠던 전례를 감안하면 최 시장의 민선8기 시정 운영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은 대목이다.

이번 선거에서 4선의원 등 다선의원들이 대부분 낙선하거나 출마를 접어 12명 중 8명이 물갈이 됐다. 김선태·우애자·이영기·이갑균 의원이 국민의힘 재선 의원으로 의회에 재입성하고, 나머지 무소속 2명과 국민

의힘 6명 등 8명이 초선이다. 시의원 물갈이율은 66.6%에 달한다.

반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단 한석도 건지지 못했다. 무소속 2석을 제외하고는 10명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때문에 정치 공학상으로 전·후반기 제9대 영천시의회 의장단은 국민의힘이 독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러나 당 외부의 우려처럼 전반기에 초선이 의장과 부의장을 독식할 가능성은 없다. 기존 재선 의원들이 '순리대로'를 앞세워 초선 의장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지역 정치 환경상 불만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재선 의원 중 9대 초기 의장을 할만한 인물이 있느냐?"는게 퇴임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과 제8대 의원 무용론이 고개를 들었던 만큼 집행부 견재력이 작동할 경우 선수나 '순리'를 앞세운 재선 중심 의장단 구성은 힘을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감안하면 전반기는 순리와 인물론을 혼합해 초선 의장과 재선 부의장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더 크 보인다.

따라서 전반기 의장은 하기태 초선 의원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8대 의정활동에서 재선의원들의 집행부 감시·감독이 부실했다는 당의 지적이 있어온데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하기태 전 영천시행정자치국장이 의장 감으로 스카웃 되었다는 당 안팎의 여론이 설득력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하 당선자 역시 "앞서 시장선거 출사표를 접고 시의회 의장이 되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해보고 싶었다"는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또 이번 선거에서 당선자 중 최다 득표인 4,634표를 얻은데다 다선거구 자체가 영천시 인구의 40%를 차지해 "의장 차지의 당위성이 있다"는게 하 당선자의 자신감이다.

그러나 부의장에는 권기환 초선의원이 당 외부에서 하마평에 오르내리지만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권 당선자도 "저는 부의장에 관심이 없으

며, 당에서도 일체 언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 밖에서만 말이 많다"면서 부의장 욕심설을 일축했다.

따라서 이번 9대 영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에는 당심이 작용할 경우 하기태 초선 의장에 재선 부의장 체제가 들어설 가능성이 가장 설득력 있다. 당 소식에 정통한 한 시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들 중 공천만 받고 당선됐을 뿐 당의 의견에 반하는 의정활동을 해온 의원들이 있었다"면서 "이번에 당에서 제대로 당력을 장악할 강력한 인물을 의장으로 추천할 것으로 본다"고 말한 것도 하 당선자의 의장 기용설에 힘을 실고 있다.

반면 퇴임 A의원은 "일각에서 재선의원들의 초선의장 불가론에 맞서 탈당도 불사한다는 강경함이 보인다"는 의견에 "현재 의장단 구성을 놓고 재선 선수나 재선의원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매끄럽다는 말들은 자기 정치를 하려는 것으로 현재 지역 정치 지형을 감안하면 밧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상황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또 당 한 원로는 "지난 제7대에서 후반기 의장에 여성·초선·비례의원이 의장에 올랐던 사례가 있는만큼 의장 인물감이면 초선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재선 의원들의 득권보다 당 결속력에 더 신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재선 한 의원은 "그래도 재선 의원이 4명이나 있는데 초선의원을 의장으로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재선 의원도 초선 의장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다른 두 재선 의원은 "우리는 당론이 있다면 당론에 따르겠다"고 말해 초선 반대 때문에 불만인 두 재선의원의 행보가 주목된다.

한편, 지역 국민의힘 당 관계자는 전반기 의장단 구성과 관련해 "세부적 협의나 당선자들과의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밝히고 "당 내에서는 평온한데 당 밖에서 재선 득권을 부추켜 당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이 의심된다"면서 "흔들림 없이 당이 화합할 수 있도록 혼란을 수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과 행사에 그치지 않기를...

발생장소 가정내(88.0%), 학대행위자 아들(34.2%), 배우자(31.7%)
 매년 6월 15일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 법정 기념일

영천시 평생학습관에서 지난 13일 '제6회 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및 신고의무자 교육'이 열렸다. 기념식과 행사에만 그치지 않고 노인학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행사가 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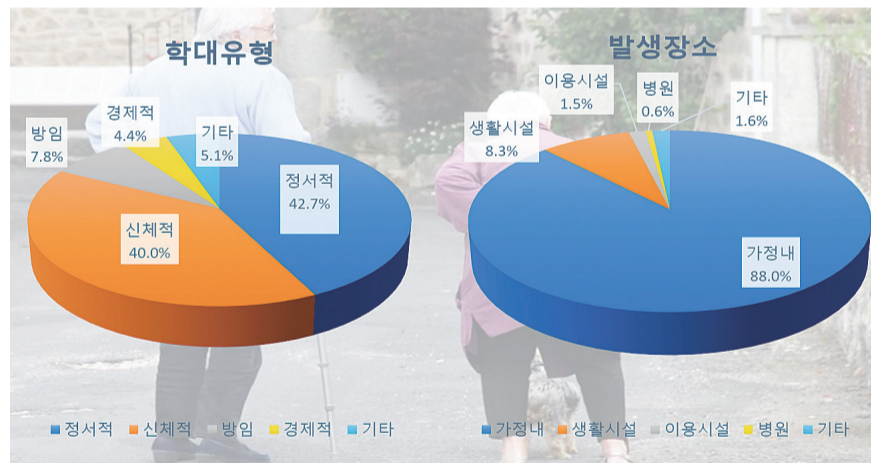
기념식은 박성수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해 노인복지 관련 종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런데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진정성 보다 행사 요식에 치우친 것 아니

냐는 지적도 있다. 한 참석자 A씨(여 52)는 "형식적 예방교육, 시상, 퍼포먼스, 유공자 표창 등 행사를 위한 행사인 것 같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북도가 주최하고 경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광석)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 기념 퍼포먼스,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또, 유공자 표창은 노인인권 증진에 기여한 단체 및 노인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관무원 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 등



시상식 일변도였다.

우리나라는 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가 2006년부터 매년 6월 15일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로 정한

후 2017년 시행되어 노인복지법(제6조 4항)에서 6월 15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여 올해 6회째를 맞는다.

2020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년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 및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그 해 6월 15일 발표했다.

학대유형으로는 정서적(42.7%), 신체적(40.0%), 방임(7.8%), 경제적(4.4%)순이며 발생장소는 가정내(88.0%), 생활시설(8.3%), 이용시설(1.5%), 병원(0.6%)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는 아들(34.2%), 배우자(31.7%), 기관(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등)(13.0%), 딸(8.8%)로 조사됐다.

노인 학대에 대한 적나라한 성적표다. 가정 내 가족 자식과 배우자 학대가 대부분이다. 행사장에서 A씨의 "유공 표창 행사보다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진정한 의미 부족이 아쉽다"는 지적이 이유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장지수 기자

국민 취미 생활 1위 낚시!
민물낚시의 성지 영천!
 전국 최다 저수지를 보유한 영천!

낚시 관광자원의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피싱엠 낚시가 앞장서겠습니다.

영천 피싱엠 낚시
 영천시 영화로 98
 ☎ 054) 335-3303

피싱엠 낚시하는 사람들!!
FISHING MEMBERS
 www.fishingm.co.kr

영천시 야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또다시 좌초 위기

[제1보]

동부동사무소이전 공약 표류 전망 시행대행사 실질적 대표 A씨 극단적 선택 경찰, A씨 53억원 배임·횡령 혐의 조사

영천도시계획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또다시 중단 위기에 처했다. 때문에 2009년부터 논의됐던 영천시 동부동사무소(주민복지센터) 이전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야사택지구 조합과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 대행사의 실질적 대표 A씨(51)가 지난 6일 밤 9시경 오미동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오늘(7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놓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과 조합, 관련 이사들의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6일 밤 9시 30분께 복층 구조인 자택 거실에서 목을 매단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A씨는 야사택지구정리사업 실질적 대표(법정 대표는 부인 B씨)로

그동안 택지지구 사업을 진두지휘해 왔다.

야사택지구사업은 1997년 사업시행인가 후 2006년 4월 시공사(K토건)의 부도로 중지돼 법정관리로 넘어갔다. 이후 2019년 4월 공사 중지 13년 만에 지금의 시행대행사가 채권(유치권) 30억원 납부와 함께 2019년 5월부터 새 출발점에 섰지만 갑작스럽게 이 날 A씨가 사망하면서 사업인가 25년만에 또다시 좌초 위기에 내몰렸다.

한편, 사업주 영천야사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 C씨)은 지난해 8월 26일 특수목적법인(SPC) D파트너(대표 J모씨)를 차주로 사업지구 체비지 약1만평을 담보로 경산 진량, 포항, 부산 등 전국 26개 마을금고로부터 280억원을 대출 승인 받아 지

난해 8월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현재 공사 진척률 17% 정도로 여기에 특수목적법인 대표 J모씨와 C조합장은 개인 연대보증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합측 등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마을금고 대출승인 다음 날인 지난해 8월 27일 곧바로 83억원을 인출해 30억원은 택지지구 법정관리 인수자금(유치권)으로 사용하고 53억원은 개인적으로 유용해 지난 2월 조합으로부터 대구 수성경찰서와 동부경찰서에 대출금 횡령·배임 혐의로 각각 고발돼 그동안 경찰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이 외에도 대구 모 사채업체에 이자를 갚지 못해 조합측(마을금고 대주단)이 추가로 20억원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알려져 A씨와 관련한 금전 사고액은 모두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마을금고(대주단측)측은 "대출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반면



중장비 뒷쪽이 야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영천시 동부동주민복지센터 신축 이전 및 국민체육진흥센터 조성 부지

조합측은 "280여명에 달하는 조합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법적 소송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오는 8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 대출기한 만료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시 사업 차질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또 동부동사무소 이전 역시 장기 표류할 운명이다.

야사택지구사업은 영천시 야사동 일원 24만9천여㎡ 부지에 사업

비 421억원을 투입해 지오종합건설(주)의 시공으로 내년 6월까지 공동 및 단독지 조성하고 도로 개설, 상하수도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영천시 동부동주민복지센터 조기 신축 이전 및 국민체육진흥센터 조성은 지난 6.1지방선거 최기문 영천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장지수 기자

[관련기사 제2보] 4면에

국민권익위 '달리는 신문고' 현장 민원 접수

영천시 26건, 4년전 보현산 글렘핑장 사건 재조명

접근성이 떨어지는 민원 취약지역을 위해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현장 민원 해결 '달리는 신문고'에 영천에서 모두 26건의 고충과 애로사항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9일 영천강변공원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정·복지·농업·산림·건축·환경·노동 분야 등에서 26건의 현장 민원상담을 접수했다고 영천시가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의 위원회의 분야별 상담조사관과 민간 협업 기관 상담관이 놓여준 등 민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지역을 직접 방문해 국민의 고충과 애로를 듣고 처리하는 현장 중심 상담서비스다.

이날 협업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천공설시장 상인회를 방문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도 받았다. 시장 상인회(회장 김용학)는 연세가 많은 상가 운전자 중 무(無)사업자로 인한 불편, 지역 상품권 사용기한(5년) 시인성 강조, 상품권 60% 사용에 따른 거스름돈(40%)의 이중과세 불편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달리는 신문고'에는 행정 민원보



다 건축 및 도로, 환경 등 생활밀착형 민원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보현산 은하수권역 '별내림촌 캠핑장'의 4년전 글렘핑장(인사사고) 사건이 이날 접수 26건 속에 포함돼 재조명됐다.

이 사건은 2018년 7월 28일 자양면 보현리 산194-11 일원 별내림촌캠핑장 내 글렘핑장에 투숙한 관광객이 발을 헛디디면서 실족해 피해자가 영천시와 운영자(최 모씨)를 상대로 민·형사 사건을 걸어오면서 촉발된 사건이다.

경상북도 감사 결과 이 사건은 영천시 공무원의 글렘핑장(캠핑장) 관리 부실이 사건의 도화선으로 지목

돼 왔지만 최 모씨 등은 "지금도 모든 책임은 영천시에 있다"면서 최기문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영천시는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 모씨와의 면담을 의도적으로 거절해 왔다.

이 사건은 지금도 최 씨와 영천시와의 관계에서 민·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 영천시는 단순 질의 등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즉시 해결이 이뤄졌으며 더욱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관련 기관과 협의하거나 권고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시장 전했다.

장지수 기자

경북소방본부여름철 벌 쏘임 주의보

날씨가 더워지면서 벌집 제거 및 벌 쏘임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경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한해 벌집제거 출동 횟수가 총 1만7738건으로 이중 6~9월 사이 1만5726건(88.7%)이 집중돼 하루 평균 129회를 출동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벌 쏘임 환자도 전체 914명 중 764

명(83.6%)이 여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올해도 벌써 70여 명이 벌 쏘임으로 급구차를 이용했다며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따라서 소방본부는 벌 쏘임 사고 예방법을 공개했다. 산행이나 벌초 등 야외활동 시, 주변에 벌이 날아다니거나 땅속이나 나뭇가지 등에 벌들이 들락거리면 벌집이 있으니 반

드시 주의해서 살피고, 선불리 제거하거나 벌을 자극하지 말고, 주위를 벗어난 후 119 도움이나 전문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야외활동 시에는 흰색이나 노란색 등 밝은색 옷을 입고 모자를 착용하면 더 안전하다. 반면, 검정색, 갈색 등 어두운 색 옷은 벌의 공격성을 더욱 증가시킨다.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벌을 쫓아내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하여야 한다.

박한우 기자

영천 A여중 과학실서 포르말린 유출 사고

사고현장 교사 1명, 동국대병원서 안구 세척 후 별 이상 없어 귀가 조치

경북 영천 지역의 A여자중학교 과학실에서 7일 오후 5시 50분경 유해성 화학물질인 포르말린 누출로 영천소방서 전문요원들이 긴급 출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에서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있던 A교사가 일시적으로 눈이 가려워 동국대병원에서 안구세척을 한 후 별 이상이 없어 귀가 조치됐다고 8일 학교측이 설명했다.

사고는 시·도교육청의 지침으로 10년이 넘은 폐시약 수거(폐기)를 위해 포르말린 시약의 중량을 측정하려고 이동하던 중 수레 바퀴가 빠지면서 시야 10리터(10명)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나자 학교측은 유해 화학



물질 사고 메뉴얼에 따라 과학실 창문 개방, 보안경 착용, 바닥 흡착포 설치, 관리자 사고발생 보고 등 사고 발생 40분만인 이날 18시 30분에 119에 신고하고 사고를 수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 출동한 영천소방서 유해화학물질 전문처리요원들은 이날 오후 8시 20분께 처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사고로 8일 학교측은 폐 사고시약은 폐기물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사고 장소인 과학교실과 과학동은 안전사고 규정에 따라 6월 12일까지 잠정 폐쇄시켰다.

장지수 기자

국도 4호선 하양~금호 확장 공사 주민설명회

10일 금호읍 행정복지센터 주민·용역사 등 60여 명 참석

국도 4호선 경산 하양~영금호(교대)간 확장이 본격화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는 영천시 금호읍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국도 4호선 경산 하양~금호 단구간 확장공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주민, 관계 부처, 용역사 등 60여 명이 참석해 노선 계획 단계부터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개최됐다.

하양~영천간은 연장 L=3.7km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 사



업에 총 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도4호선 경산 하양~금호 단구간은 그동안 출·퇴근길 교통체를 빚어왔다. 이 도로가 완성되면 경마공원조성과 맞물려 주변 역세권 개발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효정 기자

영천강변공원에서 제12회 '의병의 날' 기념식 성황리 개최

의병 후손·의병단체·공무원 등 400여명 참석
尹 대통령, 추모 화환 보내 의병 희생정신 기려
임진왜란 창의정용군 의병대장 영천 권응수 장군

제12회 의병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 13일 영천시 금호강변에서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 최기문 영천시장, 조영제 영천시의회의장, 시·도위원을 비롯한 의병 후손 등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추모 화환을 보내 의병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영령을 추모했다. 의병의 날은 의병의 역사적 가치를 일깨워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6월 1일이다. 1592년 음력 4월 22일 임진왜란 당시 광재우 장군이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날을 양력으로 환산해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것이다. 2008년 8월 의령군수 등 1만

5,586명이 '호국의병의 날' 기념일 제정을 국회에 청원, 2010년 2월 국회 통과, 6월 1일 공포돼 2011년 제1회 의병의 날 기념식이 경남 의령에서 거행됐다. 의병의 날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다. 제11회는 청송군 향일의병기념공원에서 그리고 앞서 제10회는 충남 홍성군이 개최했다. 제12회를 개최한 영천시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를 의병의 날 기념행사일로 정하고 지난 12일 영천강변공원 전야제에서는 김희재 가수가 팬들의 환호를 받았고, 지난 13일 오후 2시 본 기념식을 가졌다. 주제기념관과 체험부스에는 신기전·거북선 만들기, 의병신표 만들기, 의병의상 체험, 국궁체험, 주먹밥 시



식, 전시 등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행안부 한창섭 차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또 "의병의 정신은 통합·소통·희생의 정신으로 사회를 굳건하게 지키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강조

했다. 최기문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가 의병도시 협의회에 가입하면서 이번에 제12회 의병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게 됐다"면서 "영천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창의정용군(의병)으

로 영천성 수복전투를 승리로 이끈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들의 희생을 되새겨 이번 기념식이 의병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6월 호국보훈의 달... 올해도 어김없이 참전유공자 묘역 찾는 봉사단

대한참전유공자회 환경봉사단
16년째 영천호국원 묘비 닦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호국 열령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기 위해 16년째 어김없이 국립영천호국원을 찾는 이들이 있다. 국립영천호국원은 지난 2일 대한참전유공자회 환경봉사단(단장 도경환) 일동이 먼저 간 전우들의 비석을 닦고 묘역 주변을 청소하며 묘역 정화활동을 해 오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로 16년째 매년 6월이면 어김 없이 국립영천호국원을 찾아 호국 열령들의

숭고한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말이 아닌 진정한 가슴으로 보훈의 깊은 뜻을 받들고 있다고 호국원은 전했다. 이날 이들의 지속적 묘비닦기에 대구지방보훈청 직원들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석한 대구지방보훈청(청장 장정교) 새내기 공무원 류 모씨는 "국가유공자 한 분 한분의 비석 앞에 태극기 꽃기와 묘역 정화활동을 하면서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고 있다"고 영천호국원이 전했다. 김효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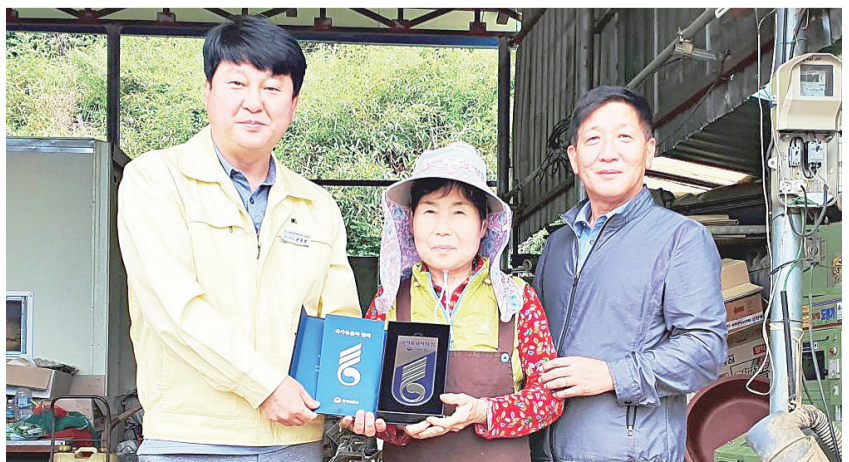


북안면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

전상이군경유족 가구

호국 보훈의 달 6월 접어들어 영천시 북안면이 16개 읍면동 중 가장 먼저 보훈 의지를 담았다. 북안면(면장 윤동훈)은 8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가정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아드리며 사회적 예우와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

업은 국가유공자를 기억하고 그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자 국가보훈처와 영천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윤 동장은 이번 명패를 달아드리기에서 전상군경유족, 무공수훈자 유족, 공상군경유족 등 24분의 국가유공자 가구를 찾아 명패를 부착하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사회적 예우와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 박한우 기자



이철우 道지사·최기문 영천시장, 제67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이철우 도지사 영천호국원
최기문 시장 충훈탑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 새겨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이 이달 6일 오전 10시 사이렌소리와 동시에 전국에서 일제히 거행됐다. 경북 영천에서는 이날 같은 시각 국립영천호국원과 영천 충훈탑에서 각각 개최됐다. 국립영천호국원에서 거행된 추념식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보훈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마음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추념식 후 이철우 지사는 호국원 내 무연고 6·25참전 국가유공자 육군병장 故 강OO 님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에서 현화·분향하고, "영웅들의 용기를 국가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조국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용기로 지킬 수 있었다"면서 또 국립현충원에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투쟁한 순국선열과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들, 그

리고 목숨을 바쳐 국민의 생명을 지키신 분들이 함께 잠들어 계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영천 충훈탑 추념식에는 유공자 가족, 보훈안보단체 및 공무원과 영천시의회 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기문 영천시장을 비롯해 장팔봉 전물군경 유족영천지회장, 최길자 전물군경미망인 영천지회장, 보훈단체장, 이만희 국회의원, 조영제 영천시의회의장 순으로 현화·분향했다. 박한우 기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후

의회 입법 담당관 첫 모임... 입법정책 역량강화 위해 뭉쳤다

경북 23개 시·군의의회 의회직 입법 담당관 50명
10일 청송 소노벨 리조트서 워크숍
영천시의회 의회직 김미영 담당관 참석



경북 23개 시·군의의회 입법 담당관이 의회 입법정책 강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의회 입법정책 담당관이 의회 전문 토론과 단합을 위해 뭉친 것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후 처음이다.

경북도의회(의장 고우현·사진)는 10일 청송 소노벨 리조트에서 도의

회를 비롯해 경북 23개 시·군 의회 입법 관련 담당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의회 입법 관련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도·시군 의회 입법 관련 담당 공무원들의 입법정책 역량 강화와 업무

협력 증진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영천시의 회에서는 의회직 김미영 담당관이 참석했다.

'지방의회의 입법정책 전문성 강화'와 '예·결산 및 비용추계의 이해'를 주제로 자치입법과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진행된 이날 워크숍에서는 입법 및 예·결산 등 실무

중심의 질의·응답이 격이 없이 진행됐다.

고우현 의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과 인사권 독립 등 의회의 변화된 환경에 발맞춰 우리 경북도의회와 시·군의의회 직원들이 입법정책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서로 긴밀히 소통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2면 사고 발생기사에 이어]

영천시 야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A씨 사망 후...동부동사무소 이전 어쩌나

[제2보]

대구 동부·수성경찰서 각각 횡령 및 배임혐의 수사 진행중
A씨(사망)는 공소권 없음
영천시, 사업 허가권자로 방만한 관리 책임론 부상할 듯

조합측은 A씨 사망 다음날인 지난 7일 긴급 이사회 회의를 소집해 14일 대의원회의에서 구체적 대안마련에 들어갔다.

조합은 이날(14일) 대의원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에 정 모씨(변호사)가 추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의원회의는 이날 조합과 시행대행사인 (주)동남에 대한 계약 해지건을 검토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빚 청산 및 당초 계약대로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시 시행대행사 해약으로

가닥을 잡고 새 시행사를 받아들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야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장기간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앞서 조합장 C씨는 7일 사표를 제출했지만 사표 수리는 총회에서만 가능해 당분간 사표도 보류됐다. 280억원 대출금 약정서에 조합장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고, 또 대출금 인출과 관련해 조합장 직인 없이는 인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조합측 관계자는 "C씨의 사표 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

다. 실제 C씨도 "앞서 사직서를 냈으나 지금은 사직을 할 수도 안할 수도 없다"며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

반면 대출 금융기관 대주단(새마을금고 26개사)은 대출금 기한 만료일이 오는 8월 27일까지 대출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출금 환수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출자 새마을금고는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상환 기일까지는 별다른 조치계획이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행사사건 등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법정 소송 등으로 대출금 담보물건 회수(경매)를 시사해 해결 실마리가 쉽지 않을 전

망이다.

그러나 A씨 사망과 관련없이 현재 공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조합측 관계자는 "현재 (주)동남과의 계약이 해지될 경우 새 시행사를 곧바로 대체해 사업은 계속해야 한다"면서 300억원이 넘는 토지를 대출 담보로 제공한 전체 조합원들은 사업 추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합측은 이번 A씨 사망으로 조합도 모르게 어떻게 대출금이 인출되었는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대출약정서에 시행대행사의 법정대표(박 모씨) 조카가 대출차주로 되어 있고, 사업목적 외에 A씨가 빌린 사채 대금(이자 등)에 20억원이 지출될 수 있었는지, 또 조합장의 직인과 이사회이록 등 인출과

관련한 서류들의 사적 사용에도 의혹을 품고 있다.

때문에 조합측은 사태를 지켜보고 (주)동남의 법정 대표를 추가로 고발할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한편, 이번 야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사태에 대해 영천시도 관리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사업은 시민 최대 숙원사업이다. 또 최기문 시장이 동부동사무소 조속한 이전을 6.13지방선거 공약에 포함할 정도로 그동안 낙관론을 보여왔다.

한 조합원은 "영천시가 감시도 하고, 수시로 사업 진척상황을 점검해 시와 민·관이 공동 협력해야 할 중차대한 사업인데도 선거공약 잉크물도 마르기 전에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것은 한마디로 허가권자의 방만한 관리 책임도 있다"고 밝히고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희망했다. 장지수 기자

우로지 음악분수대 일원 '별빛촌 목요장터' 개장

6월 2일부터 오는 10월말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9시

영천시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오후 2-9시) 마다 망정동 우로지 자연생태공원 음악분수대 광장서 지역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선보이는 '영천 별빛촌 목요장터'를 개장한다. 이곳에서 목요장터를 개최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전년도 목요장터는 지역 농업인들이 직접 재배·가공한 각종 제철 과일, 채소, 가공식품들을 판매해 약 5천명의 시민들이 방문해 약 1

여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운영주체인 영천시융복합상품화연구회(회장 채승기)는 판매 품목을 다양화하고 소비자의 호응을 얻도록 참여농가 추가모집 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효정 기자

영천중 태권도, 신희철 학생 국가대표 최종 선발

Sofia 2022 세계
제4회 아시아
카뎃태권도선수권대회
출전권 획득 쾌거

영천중학교(교장 김미라) 태권도부 2학년이 아시아 국가대표선수로 최종 선발됐다.

영천중학교에 따르면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강원도 영월실내체육관에서 열린 'Sofia 2022 세계/제4회 아시아 카뎃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2학년 신희철 학생이 웰터급 2위로 아시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카뎃〉이란 14~15세 대표라는 뜻이다. 신희철 학생은 베트남에서 열린 세계대회에서 대한민국의 국

위 선양 뿐만 아니라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고 세계 무대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신희철(2학년) 학생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훈련에 집중하고 성실히 임했다"며 "코치, 감독 선생님과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는 여러 선생님께 더 감사드린다"며 수상 소감을 학교에 돌렸다.

또 신희철 학생은 "다가오는 제 54회 경북교육감기태권도대회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태권도 도시 영천시의 의지를 다졌다.

한편 영천중학교 김미라 교장은 "2022년 본교 태권도부 대회 성적이 매우 우수하여 학교 위상을 드높였다"고 격려하고 모든 정성을 다해 뒷바라지 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도교육청, 2022년 제2회 초·중·고졸학력 검정고시 시행

6월 20일 ~ 24일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8월 30일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022년도 제2회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지난 10일 공고했다.

검정고시는 2010까지는 매년 1회 5월에 치러졌으나 2011년부터 연2회(4월, 9월)로 시행한다. 명칭도 중·고·대학 입학자격 검정고시에서 초·중(1995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1969년)로 변경됐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오는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도교육청, 포항·안동·구미교육지원청에서 현장접수와 나이스 검정고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의 꿈을 이루어 드립니다

교육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지원서 접수, 수험표 출력, 합격자 발표, 대입전형자료 확인 및 신청, 제출원형 조회 및 수선대학 이력조회를 온라인으로 처리하여 방문접수에 따른 지워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비용절감을 통해 교육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온라인접수

온라인 접수는 6월 23일(목) 18:00 까지만 가능하며, 외국학력 인정자의 경우 현장접수가 원칙이나 코로나19 유증상(자가격리자,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

다. 이때, 원본 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6월 24일) 등기 발송분에 한해 접수로 인정되고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한다.

시험일은 8월 11일(목)이며 일반인은 포항이동중학교(포항), 길주중학교(안동), 형곡중학교(구미), 재소자는 안동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총 5개 시험장 예정이며, 합격자는 8월 30일(화)에 경북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한편 검정고시 응시자 중 자격격리자 및 확진자가 시험 응시를 희망할 경우는 7월 29일(금)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의 '응시자 유의사항'을 통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중등교육과 학사고시담당(☎054-805-3384)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한우 기자



영천, 자동차부품산업 대변혁 예고... 미래 차 부품산업 구조로!

이철우 도지사, 8일 경주서 미래차 대전환 일자리 프로젝트 발대식 영천, 정서진 영천상공회의소 회장, (주)한중NCS, (주)화신 등 관심

경상북도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산업구조를 미래차 산업구조로 대 전환을 시도하고 있어 지역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고된다.

특히 경산시와 영천시, 그리고 경주시에는 모두 1,414개의 자동차 부품산업이 국내 부품의 13.7%를 차지하고 있어 빠른 미래 차 산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경북도의 자동차 산업구조 대전환 시도가 주목 받는 이유다.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지난 8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경주·영천·경산시 장 및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과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도내 자동차 관련 기업, 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미래차 대전환, 함께 만들어갑니다'라는 주제로 '경북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했다.

특히 영천에서는 정서진 영천상공회의소 회장, (주)한중NCS, (주)화신 등 지역 기업체들이 대거 참석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경북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는 경주, 영천, 경산에 소재한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부품산업 대혁신으로 지역 상생의 미래 차 부품 산업벨트를 조성해 노동 전환에 따른 일자리 유지와 인력양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미래 차 시장은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친환경, 자율주행차, 서비스 산업이 견인할 전망이다. 매년 전기차 시장은 약 20% 이상 성장 추세에 있다.

앞서 영천 첨단부품소재산업단지(영천시 채신, 본촌동, 금호읍 구암리일대)는 지난 4월 포항국가, 철강산단, 경주의동산단과 함께 경북 동부권 산단대개조 공모사업으로 내년



부터 2025년까지 3년간 30개 사업에 총 5887억원을 투자해 산업단지 대개조에 들어 갈 예정이어서 이번 발대식의 의미는 더욱 크다.

한편, 이번 발대식 2부에서 펼쳐진 전기차 모듈 전시와 지자체 최초로 진행된 전기자동차 해체 쇼

가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최근 출시된 아이오닉5를 분해해 부품별 전시와 설명을 통해 전기차 동차 최신 정보 제공으로 미래 차 전환의 가능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이 미

래 차 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 지역만의 상생형 모델을 만들어 전국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에서도 상생형 일자리가 반드시 연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15일 육군3사관학교 교장 취임식에서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왼쪽)이 방성대(오른쪽) 신임 육군3사관학교장에게 부대기를 전달하고 있다.

방성대 소장, 제37대 육군3사관학교장 취임

"정예장교 양성, 학교 도약적 변혁 위해 진력"

영천 육군3사관학교 교장이 새로 부임했다. 고창준(소장)교장이 이임하고 방성대(소장) 학교장이 새로 취임했다.

육군3사관학교는 15일,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37대 방성대 학교장 취임식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임 방 학교장은 3사 24기로 임관해 포병학교 교리발전처장, 30기계화보병사단장, 육군포병학교장 등 군의 주요 보직을 그쳤다.

방성대 학교장은 취임사를 통해 "강한 육군, 자랑스러운 육군 건설을 선도할 정예장교 양성 과 학교의 도약적 발전을 위해 진력하겠다"며 "국민과 군으로부터 신뢰받는 강하고 자랑스러운 충성대를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한편, 이임 고창준 소장은 지난 2021년 12월 부임한 후 소통과 존중의 업무문화 조성 과 학교의 외연확대에 힘써왔으며, 중장으로 진급해 수도군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장지수 기자

"영천 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 순풍"... 9일 승인 고시

영천시 공영개발사업 본격 추진... 2024년까지 완료 금호읍 삼호리 오계공단 맞은편 28만1천740㎡ 462억원 투입

영천시가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계획 4년만에 지난 9일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로 본격 개발에 착수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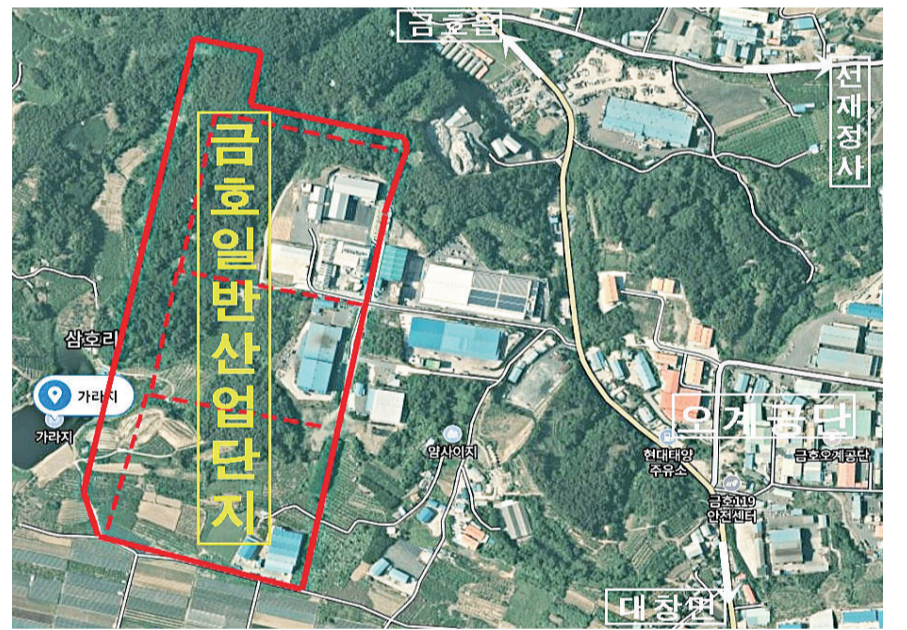
영천시는 지난 9일 경상북도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면서 이같은 내용으로 고시하고 토지보상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착공, 2024년까지 산단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호일반산단은 금호읍 삼호리 산 21-24 일대 사업비 462억 원을 투입해 28만1천740㎡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전체 면적의 57.9%에 해당하는 산업시설 용지 16만3천185㎡

에는 섬유, 금속,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 식료품, 기계 및 자동차 제조업 등 9개 업종이 들어올 수 있다.

해당 지역은 지난 수십 년간 공업 지역으로 지정된 후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과 상·하수도, 진·출입 도로 등 기반·지원시설의 여건이 취약하여 개별 공장의 불편 민원이 많았다고 시는 밝혔다. 그러나 시는 이번 산업단지 조성으로 계획 입지와 기반 시설 정비로 생산 환경 개선과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금호일반산업단지는 인근 ▷금호·대창 하이패스 IC 설치 ▷금호~대창 간 도로 4차로 확장 ▷금호~하양 간



국도 6차로 확장 사업 등이 완료되면 뛰어난 접근성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박한우 기자

이철우 지사, 6.1지선 후 경북도 첫 간부회의... 단오 맞아 한복 입고 회의 주재

창의적 아이디어가 미래 국가 발전 견인 "경북을 기회의 땅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6.1지방선거와 관련해 "변하고 있는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믿음과 신뢰가 선거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민선 8기가 시작되면 또 새로운 상상력으로 경북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가자"고 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지방선거 이후 도정업무 복귀 첫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직자들은 도민들의 이번 6.1지선 표심을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잘 맞춰 경북의 발전은 물론 지방시대를 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라는 주문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지사는 "미래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국가 발전을 견인할 것이

다"고 전제하고 "대학-기업-지방정부가 원팀이 되는 체계를 갖추고 경북의 미래는 바이오 의료산업 발전과 문화·관광·예술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면서 경상북도가 나아가 할 방향을 분명하게 못박았다.

이 지사는 또 "도지사가 없는 동안에도 흔들림 없는 도정운영을 해 온 전 직원에게 감사하다"면서도 "기후변화로 올해 폭염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특히 이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한복, 한옥, 한글, 한식 4개 문화를 경북에서 활성화하자는 의미로李志사 스스로 붉은 연홍색 한복을 입었고,



간부들도 모두 단오를 맞이한 한복 차림으로 회의를 주재해 한복과 경북의 전통문화가 도민들의 일상 생활 접목에 활착되기를 기대했다.

영천시시장 득표현황

2022. 6. 2.(목) 05:00

읍면동	선거인수	투표인수	개표율 %	후보자별 득표수(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국민의힘(2)		무소속(4)		무소속(5)		계			%		%
				박영환	%	이정호	%	최기문	%		%				
총계	90,932	51,711	100.0	22,034	43.8	1,388	2.8	26,881	53.4	50,303	97.3	1,408	2.7	39,221	43.1
관외사전	6,376	6,374	100.0	2,732	43.8	256	4.1	3,252	52.1	6,240	97.9	134	2.1	2	0.0
거소	201	185	100.0	68	38.9	17	9.7	90	51.4	175	94.6	10	5.4	16	8.0
소계	84,355	45,152	100.0	19,234	43.8	1115	2.5	23,539	53.6	43,888	97.2	1,264	2.8	39,203	46.5
금호읍	9,279	4,824	100.0	2,272	48.2	131	2.8	2,311	49.0	4,714	97.7	110	2.3	4,455	48.0
청통면	3,524	2,002	100.0	922	47.8	81	4.2	925	48.0	1,928	96.3	74	3.7	1,522	43.2
신녕면	3,308	1,862	100.0	732	40.8	59	3.3	1,002	55.9	1,793	96.3	69	3.7	1,446	43.7
화산면	2,775	1,424	100.0	644	47.6	47	3.5	663	49.0	1,354	95.1	70	4.9	1,351	48.7
화북면	1,884	1,174	100.0	653	57.4	38	3.3	446	39.2	1,137	96.8	37	3.2	710	37.7
화남면	2,828	1,593	100.0	889	57.6	39	2.5	615	39.9	1,543	96.9	50	3.1	1,235	43.7
자양면	1,005	581	100.0	247	44.2	16	2.9	296	53.0	559	96.2	22	3.8	424	42.2
임고면	3,638	2,298	100.0	1,192	53.5	67	3.0	967	43.4	2,226	96.9	72	3.1	1,340	36.8
고경면	4,812	2,701	100.0	1,380	53.1	112	4.3	1,106	42.6	2,598	96.2	103	3.8	2,111	43.9
북안면	3,964	2,234	100.0	731	34.7	59	2.8	1,318	62.5	2,108	94.4	126	5.6	1,730	43.6
대창면	2,717	1,512	100.0	717	49.1	32	2.2	710	48.7	1,459	96.5	53	3.5	1,205	44.4
동부동	21,916	10,573	100.0	4,018	38.8	187	1.8	6,145	59.4	10,350	97.9	223	2.1	11,343	51.8
중앙동	7,553	4,629	100.0	1,709	37.7	87	1.9	2,735	60.4	4,531	97.9	98	2.1	2,924	38.7
서부동	4,034	2,217	100.0	805	37.2	53	2.4	1,308	60.4	2,166	97.7	51	2.3	1,817	45.0
완산동	7,609	3,901	100.0	1,572	40.9	70	1.8	2,197	57.2	3,839	98.4	62	1.6	3,708	48.7
남부동	3,509	1,618	100.0	745	47.3	37	2.4	792	50.3	1,574	97.3	44	2.7	1,891	53.9
잘못투입된투표지		9	100.0	6	66.7		0.0	3		9	100.0		0.0	-9	0.0

경북도의원 득표현황

읍면동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보자별 득표수(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더불어민주당(1)		국민의힘(2-가)		계			%		%
			이영수	%	윤승오	%		%				
총계	47,348	27,253	9,647	36.7	16,632	63.3	26,279	96.4	974	3.6	20,095	42.4
사전투표	11,503	11,497	4,437	40.1	6,620	59.9	11,057	96.2	440	3.8	6	0.1
거소투표	100	91	26	30.2	60	69.8	86	94.5	5	5.5	9	9.0
소계	35,745	15,665	5,184	34.2	9,952	65.8	15,136	96.6	529	3.4	20,080	56.2
화북면	1,453	714	184	26.9	500	73.1	684	95.8	30	4.2	739	50.9
화남면	2,334	1,094	263	24.7	803	75.3	1,066	97.4	28	2.6	1,240	53.1
자양면	673	302	90	30.8	202	69.2	292	96.7	10	3.3	371	55.1
임고면	2,969	1,509	646	44.2	816	55.8	1,462	96.9	47	3.1	1,460	49.2
고경면	3,832	1,824	514	29.7	1,214	70.3	1,728	94.7	96	5.3	2,008	52.4
동부동	18,606	7,775	2,701	35.8	4,836	64.2	7,537	96.9	238	3.1	10,831	58.2
중앙동	5,878	2,440	783	33.2	1,578	66.8	2,361	96.8	79	3.2	3,438	58.5
잘못투입된투표지		7	3	50.0	3	50.0	6	85.7	1	14.3	-7	0.0

영천시 비례 득표현황

읍면동	선거인수	투표인수	정당별 득표수(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계			%		%
				%		%		%				
총계	90,932	51,697	11,084	22.3	38,653	77.7	49,737	96.2	1,960	3.8	39,235	43.1
사전투표	22,746	22,733	5,674	25.9	16,198	74.1	21,872	96.2	861	3.8	13	0.1
거소투표	201	185	51	29.7	121	70.3	172	93.0	13	7.0	16	8.0
소계	67,985	28,779	5,359	19.4	22,334	80.6	27,693	96.2	1,086	3.8	39,206	57.7
금호읍	9,279	4,824	514	15.3	2,853	84.7	3,367	97.2	97	2.8	4,440	56.2
청통면	3,524	2,002	173	14.9	986	85.1	1,159	97.6	29	2.4	1,500	55.8
신녕면	3,308	1,862	142	16.3	730	83.7	872	97.2	25	2.8	1,467	62.1
화산면	2,775	1,424	107	13.6	682	86.4	789	97.4	21	2.6	1,351	62.5
화북면	1,884	1,174	114	16.7	569	83.3	683	95.7	31	4.3	739	50.9
화남면	2,828	1,593	132	12.6	918	87.4	1,050	96.1	43	3.9	1,241	53.2
자양면	1,005	581	37	13.0	247	87.0	284	94.0	18	6.0	371	55.1
임고면	3,638	2,298	252	17.5	1,188	82.5	1,440	95.5	68	4.5	1,461	49.2
고경면	4,812	2,701	283	16.5	1,436	83.5	1,719	94.3	103	5.7	2,010	52.5
북안면	3,964	2,234	174	16.6	875	83.4	1,049	95.6	48	4.4	1,711	60.9
대창면	2,717	1,512	164	18.5	723	81.5	887	97.7	21	2.3	1,219	57.3
동부동	21,916	10,573	1,786	24.1	5,634	75.9	7,420	95.5	349	4.5	10,837	58.2
중앙동	7,553	4,629	521	22.1	1,834	77.9	2,355	96.5	86	3.5	3,437	58.5
서부동	4,034	2,217	246	19.8	996	80.2	1,242	96.9	40	3.1	1,847	59.0
완산동	7,609	3,901	527	22.4	1,827	77.6	2,354	97.3	65	2.7	3,730	60.7
남부동	3,509	1,618	184	18.2	828	81.8	1,012	96.4	38	3.6	1,860	63.9
잘못투입된투표지		15	3	27.3	8	72.7	11	73.3	4	26.7	-15	0.0

영천시의원 가 득표현황

2022. 6. 2.(목) 05:00

읍면동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보자별 득표수(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더불어민주당(1)		국민의힘(2-가)		국민의힘(2-나)		계					
			최순례	%	우애자	%	김선태	%		%		%		%
총 계	20,479	11,324	2,755	25.5	3,958	36.7	4,084	37.8	10,797	95.3	527	4.7	9,155	44.7
사전투표	5,414	5,408	1,437	28.2	1,805	35.4	1,859	36.4	5,101	94.3	307	5.7	6	0.1
거소투표	69	62	22	37.3	13	22.0	24	40.7	59	95.2	3	4.8	7	10.1
소 계	14,996	5,854	1,296	23.0	2,140	38.0	2,201	39.0	5,637	96.3	217	3.7	9,142	61.0
북안면	2,808	1,097	199	18.9	289	27.4	566	53.7	1,054	96.1	43	3.9	1,711	60.9
서부동	3,129	1,281	272	22.1	489	39.8	469	38.1	1,230	96.0	51	4.0	1,848	59.1
완산동	6,149	2,419	655	28.0	934	39.9	749	32.0	2,338	96.7	81	3.3	3,730	60.7
남부동	2,910	1,049	169	16.8	424	42.1	414	41.1	1,007	96.0	42	4.0	1,861	64.0
잘못투입된투표지	8		1	12.5	4	50.0	3	37.5	8	100.0		0.0	-8	0.0

영천시의원 나 득표현황

읍면동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보자별 득표수(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더불어민주당(1)		국민의힘(2-가)		국민의힘(2-나)		국민의힘(2-다)		무소속(4)		무소속(5)		무소속(6)						계	
			김형락	%	김상호	%	서만울	%	김종욱	%	조성락	%	이영우	%	김병하	%		%		%		
총 계	23,105	13,128	1,640	13.0	4,213	33.3	1,739	13.8	2,226	17.6	361	2.9	1,838	14.5	629	5.0	12,646	96.3	482	3.7	9,977	43.2
사전투표	5,829	5,828	908	16.2	1,832	32.7	759	13.5	1,117	19.9	130	2.3	624	11.1	233	4.2	5,603	96.1	225	3.9	1	0.0
거소투표	32	32	6	23.1	9	34.6	3	11.5	-	0.0	2	7.7	1	3.8	5	19.2	26	81.3	6	18.8	-	0.0
소 계	17,244	7,268	726	10.3	2,372	33.8	977	13.9	1,109	15.8	229	3.3	1,213	17.3	391	5.6	7,017	96.5	251	3.5	9,976	57.9
금호읍	7,904	3,464	240	7.1	1,420	42.2	285	8.5	201	6.0	43	1.3	933	27.7	241	7.2	3,363	97.1	101	2.9	4,440	56.2
청통면	2,688	1,189	225	19.6	255	22.3	334	29.1	115	10.0	112	9.8	58	5.1	47	4.1	1,146	96.4	43	3.6	1,499	55.8
신녕면	2,364	897	79	9.1	150	17.3	59	6.8	513	59.2	28	3.2	29	3.3	9	1.0	867	96.7	30	3.3	1,467	62.1
화산면	2,161	810	93	12.1	242	31.4	176	22.8	138	17.9	32	4.2	54	7.0	36	4.7	771	95.2	39	4.8	1,351	62.5
대창면	2,127	908	89	10.2	305	35.1	123	14.1	142	16.3	14	1.6	139	16.0	58	6.7	870	95.8	38	4.2	1,219	57.3
잘못투입된투표지				0.0		0.0		0.0				0.0		0.0		0.0	-	0.0		0.0		0.0

영천시의원 다 득표현황

읍면동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보자별 득표수(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더불어민주당(1)		국민의힘(2-가)		국민의힘(2-나)		무소속(4)		무소속(5)		무소속(6)					계			
			조창호	%	하기태	%	이영기	%	김용문	%	정희영	%	전종천	%		%		%			
총 계	31,901	17,629	2,644	15.5	4,635	27.1	3,841	22.5	3,116	18.2	165	1.0	2,697	15.8	17,098	97.0	532	3.0	14,271	44.7	
사전투표	7,355	7,354	1,219	17.1	1,912	26.8	1,644	23.0	1,258	17.6	69	1.0	1,044	14.6	7,146	97.2	208	2.8	1	0.0	
거소투표	62	57	14	25.5	12	21.8	18	32.7	2	3.6	1	1.8	8	14.5	55	96.5	2	3.5	5	8.1	
소 계	24,484	10,218	1,411	14.3	2,711	27.4	2,179	22.0	1,856	18.8	95	1.0	1,645	16.6	9,897	96.9	322	3.2	14,265	58.3	
동부동	18,606	7,776	1,093	14.6	2,148	28.6	1,611	21.4	1,482	19.7	75	1.0	1,102	14.7	7,511	96.6	265	3.4	10,830	58.2	
중앙동	5,878	2,441	318	13.3	562	23.6	568	23.8	374	15.7	20	0.8	543	22.8	2,385	97.7	56	2.3	3,437	58.5	
잘못투입된투표지	1			0.0	1	100.0		0.0				0.0		0.0	1	100.0	1	100.0		-2	0.0

영천시의원 라 득표현황

읍면동	선거인수	투표인수	후보자별 득표수(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국민의힘(2-가)		국민의힘(2-나)		무소속(3)						계	
			권기환	%	이갑균	%	서정구	%		%		%		%
총 계	15,447	9,624	2,941	34.0	3,207	37.0	2,510	29.0	8,658	90.0	966	10.0	5,823	37.7
사전투표	4,148	4,143	1,388	35.5	1,428	36.5	1,094	28.0	3,910	94.4	233	5.6	5	0.1
거소투표	38	34	14	43.8	8	25.0	10	31.3	32	94.1	2	5.9	4	10.5
소 계	11,261	5,447	1,539	32.6	1,771	37.6	1,406	29.8	4,716	86.6	731	13.4	5,814	51.6
화북면	1,453	714	225	37.6	234	39.1	139	23.2	598	83.8	116	16.2	739	50.9
화남면	2,334	1,094	371	38.9	374	39.2	208	21.8	953	87.1	141	12.9	1,240	53.1
자양면	673	301	77	31.8	105	43.4	60	24.8	242	80.4	59	19.6	372	55.3
임고면	2,969	1,508	270	20.1	789	58.7	285	21.2	1,344	89.1	164	10.9	1,461	49.2
고경면	3,832	1,822	591	37.6	267	17.0	714	45.4	1,572	86.3	250	13.7	2,010	52.5
잘못투입된투표지	8		5	71.4	2	28.6		0.0	7	87.5	1	12.5	-8	0.0

영천3사관학교, 사관학교 최초 탄소중립 캠퍼스 조성 선포

정부 2030 탄소중립·미래국방혁신 전략 발맞춰 그린 캠퍼스 구현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다.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국제사회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공동노력을 다짐하는 뜻에서 매년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

영천 육군3사관학교(교장 고창준 수장)는 이 날을 기념하고 정부 '그린뉴딜' 환경정책에 앞장서 사관학교 최초로 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 저감 설비를 갖춘 그린(Green) 캠퍼스 조성을 위해 지난 3일 퍼포먼스와 함께 '2030 탄소중립 캠퍼스 선포식'을 가져 화제다.

학교는 이날 정부 '그린뉴딜', '더 선진화된 군'의 주제 아래 순수 생도들이 주체가 되어 '지속 가능한 국방력 건설'이라는 모토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린(Green) 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각오를 나타냈다.

이날 행사에는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비롯한 사회 각층의 저명인사들이 축하 영상을 보내왔고, 경북 행정부지사, 영천 부시장, 대구대 총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를 위해 학교는 '22년까지 환경정책 연구 및 학술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탄소중립 붐(Boom) 조성, 군 내 친환경 제품 개발 및 특허출원, 환경동아리 활성화 등을 통해 실질적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1단계와 2단계로 '25년까지 민간투자사업 캠퍼스 신축공사를 친환경 생활 밀착형 공원으로 조성, 건물 옥상녹화, 실내 정원 '에코존(Eco Zone)' 확대, 태양광과 전기충전소를 확충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3단계로는 '30년까지 차량 및 장비를 수소/전기차 도입을 통



해 친환경 제품으로 전환,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인증받아 생도들이 입관 시 환경교육사 3급(국가공인) 자격 취득,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빅데이터(Big Data)를 구축해 탄소중립 연구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학교의 자발적 이번 선포식은 작은 실천이 정부에 '그린뉴딜' 정책과

군의 '더 선진화된 군' 시책에도 부합해 미래지향적인 군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30 탄소중립 캠퍼스 선포식'은 생도들이 주체가 되어 사관학교 최초로 실시되었다는 점과 지역과 상생하는 군부대 롤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행사다.

학교장 고창준 소장은 "탄소중립은 우리 모두가 지금 바로 실천해야 하는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다"면서 "3사관학교 전 장병 및 사관생도들은 '가치있는 녹색강군', '같이하는 탄소제로'를 선포하고 정부 2050 탄소중립 시책과 미래국방혁신전략에 선봉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 귀농·귀촌사업으로 인구유입 늘린다

귀농·귀촌 영농정착 교육 13일부터 29일까지 8회 총 40시간 이수



영천시가 귀농·귀촌사업에 각별히 신경을 쏟고 있다. 지역 인구 늘리기 핵심 사업으로 자리잡으면서다. 올해 5월말 영천시인구는 4년 전 2018년 말(101,595명)보다 204명 줄어든 101,391명을 기록하고 있다.

시는 지난 13일 관내·외 귀농인 및 예비귀농인 83명 등 신규 농업인

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올해 귀농·귀촌 영농정착 기초교육'을 개강해 기초 영농이론과 농촌 정착에 필요한 지원교육을 본격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총 8회 40시간으로 영농 경험과 농장 설계 및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등 귀농의 초기 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이번 교육은 농업정책 안내, 농촌 비즈니스 모델 개발, 마을 갈등 관리와 같은 실제 농촌정착에 필요한 현실적인 교육으로 귀농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영천시는 현재 자양면 보현리에 총 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해 단독주택 13동과 원룸형 22세대 3동 등 모두 35세대의 귀농 체험이 가능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곳은 교

육장, 실습텃밭, 시설하우스 등을 갖추어 영농체험교육을 통해 귀농 정착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한편, 통계증 기준 영천시 귀농 가구는 2018년 160가구, 2019년 154가구, 2020년 149가구로 귀농 유입 가구 도내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2021년 지자체 16개 읍·면·동 전입신고 기준 귀농가구(농지원부) 조사에따르면 전입 1,790호 중 귀농 가구수 490가구로 총 귀농 인구수는 2,461명으로 파악됐다.(농촌지도과 자체 조사)

최기문 영천시장은 "신규 농업인들이 농업과 농촌을 이해하고 영농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영천시로 도시민의 유입이 원활하도록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정책사업 및 교육을 확대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장지수 기자

영천소방서, 소방기술경연대 1등 독차지

구조·구급·화재진압 경북 최고 구조분야 1위, 구급 3위, 화재진압(속도방수) 도내 1위

영천소방서(서장 김용태)가 경상북도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가해 각 분야 1위 등 시상상을 독차지했다.

15일 영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9일까지 3일간 실시한 경상북도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가해 구조분야 1위, 구급분야 3위, 화재진압분야(속도방수) 도내 1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는 최강소방관·구조·구급·화재진압 분야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이며, 소방공무원의 재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화재진압분야(속도방수) 경기는 5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화재현장이라는 가상의 조건 속에서 출발선에서 화점에 방수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해 평가하는 종목으로 신속성과 정확성이 요구된다.

이번 대회에서 화재진압 속도방수팀(팀장 소방경 안준현, 소방장 구분석, 소방교 기대승, 소방사 권봉조, 이상민, 이강재)은 평소 꾸준한 연습으로 실력을 갈고 닦았으며, 19개 소방관서 중 가장 우수한 성적(24초84)으로 1위를 차지해 오는 9월 소방청 주관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경상북도 대표 출전권을 따냈다.

구조분야(응용구조팀 팀장 소방위 배광식, 팀원 소방교 손양호, 정해천, 손현준, 정규일)와 구급분야(119구급활동팀 구급대장 소방교 김종찬, 팀원 소방교 허소현, 소방사 김세련, 노진아)는 각각 1위와 3위(구급)를 차지해 영천소방서의 실력을 과시했다.

김용태 소방서장은 "더운 날씨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우승이라는 성과를 내준 선수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현장에서도 지금처럼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박한우 기자



제기 자동차세 납부 홍보

영천시는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44,893건, 47억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홍보하고 있다.

대상은 6. 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다. 1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해 부과되며, 승합·화물·경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된다.

앞서 1월과 3월에 연납한 자동차와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에 따라 감면되는 운수사업자의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고지서 발부가 제외됐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 ATM기에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1899-6115)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영천시자원봉사센터 '리브하우스' 4호 완공

㈜한중NCS,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정기탁 3년째

영천시자원봉사센터(소장 구홍우)는 지난달 31일, 금호읍 황정리에서 김환식 ㈜한중NCS 대표이사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리브하우스 4호' 완공식을 개최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9년 삼성전자판매주식회사가 지원한 서부동 1호 사업이 시작됐다. 2020년부터는 제2호 사업으로 ㈜한중NCS가

직장인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성금을 지정기탁해 올해 4호까지 사업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번 4호 리브하우스는 한중NCS가 지정기탁금 2,000만원을 후원하고 집수리 전문 봉사단체인 징검다리 봉사단(회장 박대진)과 아름다운 봉사회(회장 윤태묵) 회원 30여 명의 재능 나눔 봉사활동 참여로 진행됐으며, 화장실 개축, 싱크대 교체, 대문 설치 등 독거 어르신들의 노후가옥의 전반적인 수리가 이뤄졌다. 김효정 기자



호국보훈의 달 6.25 특집

6.25전쟁은 스탈린의 허가 받아 북한 김일성이 남한을 침략

- 6.25의 노래(원곡) 개사한 심재방 시인의 新 6.25 노래 -

미국은 대한민국의 영원한 우방
이승만 대통령·백선엽장군
자유를 지킨 호국 영웅들

다가오는 6월 25일이 한국전쟁 72주년을 맞는다. 이날 영천시와 국립영천호국원에서 각각 호국영령들에 대한 추모행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13일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김일성이 일으킨 6·25전쟁' 사진전을 개최해 화제다.

정경희 의원은 6.25전쟁은 "김일성이 기획하고 스탈린이 승인했으며, 마오쩌둥이 지원한 반(反)민족적 불법 침략 전쟁"이라며 "심각하게 좌편향된 역사교육 때문에 학생들이 6.25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

정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본지와 통화에서 "6·25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며 대한민국을 지켜냈는지, 그렇게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번 사진전을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사진전의 의미를 전했다.

여기에 더할 인물은 백선엽 장군이다. 백선엽 장군은 6·25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낙동강 전선 다부동 전투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전쟁영웅이다. 약 8천명의 병력으로 북한군 2만명의 공세를 물리쳐 낙동강전선(워크라인)을 지켜냈다. 영천신녕전투에도 부하들을 파견해 승리로 이끌었다. 이로 인해 인천상륙작전을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좌파 세력은 이승만 대통령과 백선엽 장군을 비롯한 호국영웅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지어 '파묘' 운운하는 반인륜적 주장도 서슴지 않고 있다. 작년에는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백선엽 장군 묘소에 몰려가 시위를 벌이며 묘소 안내 간판을 뽑으라고 요구했다.

더 심각한 것은 현충원 측이 그들의 요구에 굴복해 즉시 안내판을 뽑아버렸고, 국회의원인 제가 안내판을 복구하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제 요청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가짜역사가 넘쳐나고 있다. 그 가짜역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



지난 13일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김일성이 일으킨 6·25전쟁' 사진전을 개최했다.

제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런 좌편향된 역사교육으로 우리 학생들은 6·25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우리는 이 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린 많은 분들을 기억하고, 그 분들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후손들에게도 물려 주어야 한다. 호국영웅을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시위를 막아내지 못해서 그 분들이 제대로 예우받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이 나라를 지키려 하겠는가?

<2022. 6. 13. 국회의원 정 경 희 사진전 개회사 중에서>

<6.25의 노래>(원곡)
작사 박두진 / 작곡 김동진

1.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떠날을

<후렴> 이제야 값이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 겨레

2.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불의의

역도들을 멧도적 오랑캐를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흘려온 값진 피의 원한을 풀으리

3.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정의는 이기는 것 이기고야 마는 것
자유를 위하여서 싸우고 또 싸워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리

원곡 가사는 정말 훌륭한 노래다. 박두진이 작사하고 김동진이 작곡한 '6·25의 노래'는 매년 6·25 기념행사에 제창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등에서 '6·25의 노래'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10년간 금지곡으로 또 가사도 개사되었다는 게시물이 널리 퍼지고 있다. 즉, '신 6.25의 노래'가 행사때 불려지고 있다는 주장. 결론은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이를 혼란으로 이끈 실증은 존재한다. 심재방 시인이 6.25의 노래 원곡 가사를 개사한 시 '신 6.25의 노래'를 내놓은 것은 사실이다. 14일 보훈처는 "6.25 기념행사에서는 항상 원곡이 사용됐고, 개사된 노래가 불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본지 질문에 답했다.

그러나 각 지자체별로 6.25 행사때 가끔 6.25의 노래가 생략되면서 혼란을 빚어온 것이다. 그렇다면 심재방 시인이 '6.25의 노래' 원곡을 어떻게 개사했는지 살펴보자.

심재방 시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모 시 '별이 되신 님이시여!'을 쓴 시인이다. 주사파들의 신념이 담긴 新6.25 노래다.

新 6.25 노래 (심재방 지음)

1.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 날을 조국의 산하가 두 동강나던 날을 동포의 가슴에다 총칼을 들이대어 핏물 강이 되고 주검 산이 된 날을

<후렴> 이제야 이루어 그 날의 숙원을 동포의 힘 모아 하나의 나라로 피의 원한 풀어 하나의 겨레로 이제야 이루어 한나라 한겨레

2.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 날을 동포 형제를 원수로 만든 그들을 겨레의 이름으로 부수고 또 부수어 선열의 흘린 피 헛되지 않게 시리

3.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 날을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번영 위해 민족의 공적과 싸우고 또 싸워서 통일의 그날이 기어오르게 하리

1절에는 북괴군이 남침했던 내용 대신 남북한을 동포로 서로 총칼을 겨누었다는 정황만 설명하고 있다. 즉, 북침이 아니라 내전을 의미한다.

<후렴>에서는 남북한이 힘을 모아 미국을 무찌르고 통일을 이루는 원한을 풀자는 뜻이다. 결국 미국이 6.25의 침략자라는 뜻이 된다.

2절에서는 6.25 전쟁의 책임은 북한이 아니라 외세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외세란 미국을 의미한다. 미국을 쳐부수자는 것.

3절은 민족의 공적과 싸워서 통일을 이루자는 내용이지만 여기서 공적 또한 미국을 의미한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번영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를 앞세워 결국 우리의 적은 미국이며, 6.25 전쟁이 북침이 아니라 외세에 의한 남침으로 왜곡하고 있다.

이는 민족 최대의 비극인 6.25전쟁을 왜곡하고, 그 책임이 김일성에게 있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일성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다. 또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미국이 원수라는 의미다. 하지만 분명한 역사는 그 날의 원수가 북한 김일성임을 확실하게 증명되어 있다. 스탈린 기밀문서 해제에서도 김일성이 스탈린을 찾아가 허락을 얻어 전쟁을 일으켰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종북좌익들의 영악함은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다. 전교조를 통해 아이 때부터 세뇌를 시키고, 수십 년을 불려오며 반공정신을 일깨워준 6.25의 노래조차 저런 식으로 개사를 하면서 야금야금 그 영역을 넓혀가며 자라나는 세대는 그런 왜곡된 역사에 세뇌되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되지 않아 불만인 주사파들의 사상을 그들은 "미국때문에. 미국이 없었다면 김일성이 남한을 적화 통일해 지금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함께 잘 살텐데 참으로 억울하게 됐다"는 종북 주사파들의 사고를.

이제 6.25가 10일 남짓 다가왔다. 자라나는 세대들은 이제 6.25의 노래를 잊어가고 있다. 돌아오는 제72주년 6.25 행사때는 반드시 원곡 6.25의 노래가 울려 퍼지길 기대한다.



동정

제21대 국회 하반기 준비



이만희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회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되면서 제21대 국회 하반기 준비에 돌입했다. 이 의원은 14일 당수석전문위원 및 행안위 위원들과 주요현안을 논의하고 15일에는 원내대책회의와 의원총회 등 정국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고공행진 중인 물가급등과 금리인상 등 민생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하루빨리 국회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지방시대 미리 준비하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5일 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지방시대 주도 경상북도 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지방시대는 중앙이 아닌 지방에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또 책임은 당선된 도지사가 지는데 중앙에서 예산, 조직에 대해 감나라 배 나라 하는 것은 지방자치 원리에 역행하는 행태다"며 "목마른 지방이 직접 나서 참신한 정책들로 지방분권을 선도하자"고 지방시대 역할론을 강조했다.

17일부터 읍·면·동 방문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달 17일부터 지역 16개 읍·면·동을 방문한다. 방문 명분은 주민과의 대화다. 최 시장은 금호읍(17일)을 시작으로 20일 청통·대창면, 21일 신녕·화산면, 22일 북안·완산동, 23일 임고면, 24일 자양·고경면, 27일 동부·중앙동, 28일 서부동, 29일 남부·화남면, 30일 화북면 순으로 방문한다. 사실상 당선 인사를 결합 것으로 전망된다.

제8대 영천시의회 송별연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은 15일 오전 11시 영천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열린 제8대 영천시의회 송별연에 참석했다. 이날 조 의장은 떠나는 의원들에 제8대 의원 재직 기념패를 전달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조 의장은 이날 송별연 후 시내 한 한식집에서 오찬으로 제8대 의회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영천호국원 전몰학도의용군 추념식 참석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지난 14일 국립영천호국원에서 열린 올해 전몰학도의용군 추념식에 참석하고, 추념사를 통해 뜻깊은 학생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여해 장렬히 산화한 전몰학도의용군의 넋을 기렸다.

지역 초·중 30명 독도체험 격려



주원영 영천시교육장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초등학교 16명, 중학생 14명 등 모두 30명의 지역 학생들의 독도탐방과 관련해 학생들의 나라사랑 수호 의지를 격려했다. 주 교육장은 또 김영순 인솔단장(영동중학교장)을 통해 "아름다운 독도를 잘 보존하고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학생들이 되길 기대한다"며 당부했다.

이만희 의원, 국회 행안위 간사로 선임

검수완박 후 행안위 역할 급부상? 농해수위·예결위 간사에서 행안위 간사로...이 의원 역할 주목

지역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된 것으로 지난 10일 확인됐다.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다. 행안위 간사는 의사 일정, 등을 협의하고, 교섭단체간 위원회의 쟁점을 최일선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행안위는 중앙·지방정부를 연결해 국정을 통합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과 예산을 다룬다.

경기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재선 국회의원인 이만희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이후 경찰의 권한 강화와 조직 개혁이 큰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이 의원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이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이 민주당에 의해 잇따라 강행 처리된 이후 행안위에서 간사직을 맡아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소야대 국정 가운데 여당 간사로서 중재와 협치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제20·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했다. 또 지난해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며 양 위원회로부터 예산 분야에서 날카로운 전문성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 장지수 기자



"무늬만 지방자치... 대한민국 존립 자체는 기적"

수많은 외침과 탈냉전 속 공산화에 굴하지 않아 높게 평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금의 대한민국은 무늬만 지방자치이며, 수많은 외침과 탈냉전 속에서도 공산화에 굴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면서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영천 육군3사관학교 특강에서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이날 1,000여명의 3사관학교 생도들 앞에서 '대한민국 청년장교, 역사를 돌아보며 미래의 길을 열자'라는 주제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시대를 열어야 소득 5만불과 통합과 번영의 시대라는 미래를 열 수 있다면서 이같이 역설했다.

지난 4년간 도지사로서의 경험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여전히 무늬만 있을 뿐, 분권형 헌법개정과 500만 규모의 경제권을 만들어 지방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청년 장교들에게 현장에서 답을 찾고 칭찬을 통해 사람을 얻는 리더가 돼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우리 경북에서 훈련받는 사관생도들 앞에서 특강을 하게 돼 영광이다"며 "젊은 청년장교들이 건전한 철학을 가지고 대한민국 미래의 길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 지사는 '대한민국 청년장교, 역사를 돌아보며 미래의 길을 열자'라는 제목으로



로 35페이지 PPT를 띄우면서 "우리는 어디에서 있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세계사의 경제상황을 나열하며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한우 기자



왼쪽부터 우애자, 최순례, 서정구(의원), 최기문 시장, 조영제 의장, 조창호, 이영기, 김선태, 이갑균(의원)

제8대 영천시의회 4년간 여정 마무리... 송별연

제8대 영천시의회(의장 조영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제9대 의원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6월 30일 4년간의 의정을 마무리한다.

조영제 의장은 15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최기문 영천시장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대 영천시의회 의원 송별연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제8대 4선 전종천·정기택 의원을 비롯해 박종운·김병하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8명의 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조 의장은 4년간 의정활동을 펼쳐온 의원들에게 재임기념패를 전달하고 최기문

영천시장에게는 8대 의원들의 뜻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반면 최기문 영천시장은 전체 의원들에게 영천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 및 노고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제8대 영천시의회는 지난 2018년 7월 2일 출범해 4년 동안 총 31회 318일간 회기를 열어 조례 275건, 예·결산안 78건, 동의안 70건, 결의안 15건 등 총 68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권익 대변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시정질문 등의 업무

에 성실히 임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제시에 앞장서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조영제 의장은 송별사를 통해 "지난 4년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협조를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간의 소회를 전했다.

한편 제9대 영천시의회는 오는 21일 당선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7월 1일 제223회 임시회에서 제9대 의회 원구성 및 개원식을 갖고 4년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지수 기자

세무



윤영민 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매출은 줄어드는데 고정비 높은 임대료
상가임대료 인하한 사업자 세액공제제도
코로나19, 소상공인 돕고 세액공제 받자!

올해 자영업자들의 힘든 부분 중 하나는 매출이 줄어들었는데 매월 나가는 고정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임대료의 부담이다. 특히 학원이나 실내체육업 등 고정비 중에서 높은 임대료가 고민이다.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상가임대료를 인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상가건물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별표 14에 있는 업종(과세유형장소,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고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사업용으로 임차하는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임대료를 인하는 경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다.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의 5% 이상을 인상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된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빌딩 소유주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는 경우 못 받은 만큼의 세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고, 인화된 금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으므로 소득의 손실이 적어진다. 세액공제라는 제도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므로 고액의 임대수입이 있는 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를 세법에 의해 보전 받게 된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합의사실 증명서류,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등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기자수첩



김효정 기자

민주당 출신 노인편하 정치인
그들도 60, 노년기
추운 겨울이 되지 않길 바란다.

속담에 '늙은 개는 함부로 짖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이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 쓸데 없는 짓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오랜 경험에 의해 헛되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이기도 하다.

지난 31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 일흔이 넘으셨으니 새로운 걸 배우시기는 좀 그렇지 않나. 하시던 일 쪽 하셨으면 좋겠다"고 국민의힘 송기윤(70세) 증평군수 후보의 나이를 언급하며 비판을 받고 발언 하루 만에 사과했다.

앞서 2004년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당시 40대)은 "60·70대는 투표 안해도 괜찮다. 집에서 쉬셔도 된다", "곧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라는 발언을 해 결국 사퇴했다.

같은 해 유시민 작가(당시 40대)는 "...50대에 접어들면 죽어가는 뇌세포가 새로 생기는 뇌세포보다 많죠? 사람이 명칭해 집니다. 저는 개인적인 원칙중 하나가 60세가 넘어가면 책임있는 자리 있지 말자. 65세가 넘으면 때려 죽어도 책임있는 자리 가지 말자가 제 소신입니다. 왜냐하면 뇌세포가 왕성할 때 얻은 배경을 가진 지위를 가지고 그 사람 과거에 지위를 획득할 당시에 능력있던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예요..."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2012년 19대 총선에는 민주통합당 서울 노원갑

김용민 후보도 "노인네들이 오지 못하게 엘리베이터를 모두 없애버리자."는 발언을 해 큰 파장을 겪고 SNS사과문을 올렸으나 낙선했다.

2019년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당시 열린 최고위원회의 손학규 대표에게 "개인 내면의 민주주의가 가장 어렵다.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이라고 해 손 대표를 향해 직접 고개 숙여 사과하며 수습했다.

또, 2020년 서울 관악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김대호 후보는 "나이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는 말로 곤욕을 치르고 사과 후 미래통합당에서 김 후보를 제명했다.

위의 화자들은 현재 60의 전, 후 나이가 되었다. 이들은 언제나 젊을 줄 알고 말했을까? 이들은 고령자, 노인, 어르신이라는 호칭이 싫어서 폄하했을까? 대상이 싫어 폄하했을까?

그러던 화자들 또한 어느덧 중년에서 고령으로 접어들었거나 들고 있다. 앞으로 다음세대들이 하는 말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며 얼굴에 첩판을 대고 있을지...

지난 6.1총선에서 영천 시민들은 일흔이 넘은 최기문 영천시장을 선택했다. 이들 민주당 출신들의 60대 이상 인생 폄하는 곧 우리 영천시민을 옥보인 것이 된다.

탈무드에 '어리석은 자의 노년은 겨울이지만 현명한 자에게 노년은 황금기다.'라고 했다. 위의 화자들이 어리석은 자로 노년의 겨울을 보내지 않기를 바란다.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으며 어른을 경시 여기는 태도가 있다. 위의 화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어른은 우리의 살아있는 역사이며 증인이고 앞선 세대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크던 작던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감을 갖고 생활해 온 공헌자라 볼 수 있다.

사람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려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말과 행동은 조심해야 하며 다음세대를 위한 겨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리석은 자의 노년이 추운 겨울이 아니라 황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영천신문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장지수 | 인쇄인 ㈜중앙일보
대표전화 332-2400 | FAX 335-6600 | E-mail ycn@yctoday.net
구독료 : 월 5천원, 1년 6만원, 경상북도 영천시 호국로 17
계좌번호 : 농협 301-0093-9954-51 (㈜영천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사설]

영천시의 호국보훈 진정성 아쉽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호국보훈(護國報勳)이란 '나라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다. 호국(護國)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산화한 분들의 공훈에 보답한다는 의미의 보훈(報勳)이 더해진 단어다.

영천시는 지난 6월 제67회 현충일 행사를 마한산 충혼탑에서 개최했다. 같은 시각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립영천호국원에서 추념식을 가졌다. 6.1지방선거 이후 갖는 첫 공식 행사여서 호국보훈에 대한 진정성이 기대됐다. 그런데 보훈의 진정한 의미보다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고 말았다.

영천시는 충혼탑 행사장에 몽골텐트를 설치하고 입구에 아치 탑도 세웠다. 또 진입로에는 행사를 위한 안내 간판을 설치하고 각 기관단체장에 초청장을 보내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지난 5일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충혼탑 계단 청소까지 마치고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반면 현충일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시내 거리는 영천시의 '호국보훈' 현수막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지방선거 직후 당선 축하 현수막만 난무하게 걸려있다. 도로 한쪽 모서리에 간혹 호국보훈과 관련한 현수막이 한 두 장 붙어 있지만 무분별한 축하 현수막에 가려 시민들에게 호국보훈 의미를 되새기고 계몽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만희 의원이 「송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현수막 35장(16개 읍면동), ▲보훈회관 앞 보훈단체가 「우리의 나라사랑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1장, ▲하기태 영천시의원 당선자가 「호국 영령들의 송고한 뜻을 이어받겠습니다」 6매, ▲시립문외센트럴어린이집 「고귀한 희생 가슴깊이 새기겠습니다」1장, ▲금호 자유총연맹 1장 등 시내 전역에 모두 44매가 전부였다.

본지가 지난 5일 오후 3시까지 시내 전체를 확인한 결과 겨우 위 5개 기관 단체 및 개인이 게시한 현수막만 눈에 들어왔다.

뒤늦게 ▲市 관계자는 "올해 서부동과 신망정사거리, 시청오거리와 추념 행사장인 충혼탑에 각각 1장씩 모두 4장의 현수막을 내다 걸었다"며 본지 인터넷판 『[현장 스케치] 호국보훈의 달 영천 시내 보훈 의미 찾아보니... '호국보훈' 영천시 현수막 어디?』 보도에 대해 항의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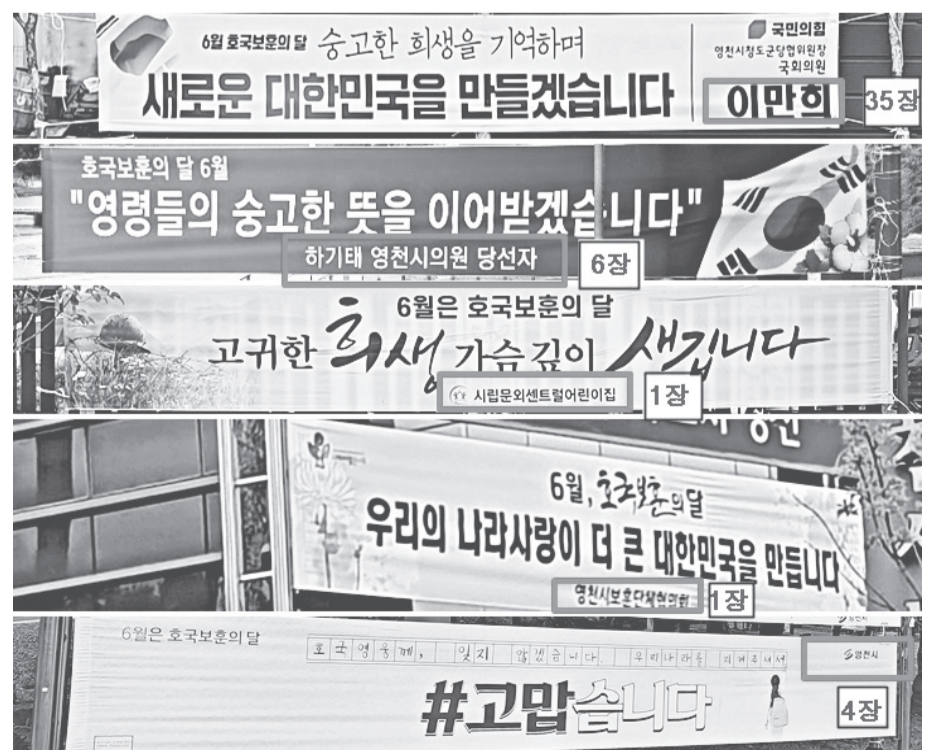
뒤늦게 추가로 확인한 결과 눈에 잘 띄지 않는 흰 바탕에 "# 고맙습니다" 현수막 4장이 고작이다. 우리(영천시)도 달았는데 왜 보지 못했냐는 항의로 비쳤다. 이 현수막은 마치 선거 직후 감사인사를 한듯해 누가 봐도 호국보훈 현수막이라는 걸 느끼지 못했다. <아래사진 참조>

영천시는 지난해 6월에도 이같은 호국보훈 현수막을 내걸지 않았다. 또 2년 연속 현충일 태극기도 게양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67회 현충일 추념식 충혼탑 행사장 안내 현수막·간판, 충혼탑 계단에 대형 아치 설치, 행사장 몽골텐트, 초청장 등 행사만은 성대하게 치렀다.

더군다나 지난 13일 치뤄진 의병의 날 행사에는 거리 가로기와 공연, 현수막, 언론홍보 및 영천시 깃발 등 2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대대적 정성을 쏟았다. 호국보훈의 달 현충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현충일 시민계몽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언론 지적에 우리(영천시)도 "# 고맙습니다" 현수막 4장을 달았다고 항의할게 아니라 거창한 행사보다 진정한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보훈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에 진정성을 가져야 하겠다는 자세는 온데간데 없고 언론 지적에 대한 항의가 목적인게 아쉽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도심 곳곳에 시민들에게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각종 행사와 이벤트 및 현수막으로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킨 분들의 송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그들의 흔적을 찾아 현화·분향하는 등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영천신문’의 인터넷판
‘영천투데이’를 클릭하면
오늘이 보입니다
Best!
홈페이지(영천신문과 공동)
www.yctoday.net
기사제보 : yctoday1@naver.com

지난 5월 28일
확장 이전(개업)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한그릇의 만족

넓은 실내, 깨끗한 주방, 아늑한 조경,
자연과 함께 식사 후 야간 강변 산책도 가능한
아늑한 국밥집
"최고의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영천시 고경면 간포 구보길 43-6
(054) 333-4710
한그릇의만족 대표 탁기만

